간지기년(干支紀年)의 형성과정과 세수(歲首)·역원(曆元) 문제

김만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조교수, 명리학 전공
ware4u@dongbang.ac.kr

Ⅰ. 머리말
Ⅱ. 간지의 기원과 술수로서의 역(曆)
Ⅲ. 기년법의 양상과 간지기년
Ⅳ. 간지기년의 세수(歲首)와 역원(曆元) 문제
Ⅴ. 맺음말

I. 머리말

십간(十干)·십이지(十二支), 즉 천간(天干)·지지(地支)의 간지(干支)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단순한 부호의 차원을 넘어 수많은 문화요소와 결부되면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산출하며 존재해오고 있다. 간지가 활용되는 여러 경우 중에서도 가장 유구하면서도 대표적인 예는 무형의 시간인 날짜를 매기는 역(曆, calendar)의 부호로서이다.[1] 즉, 십간(10)과 십이지(12)의 최소공배수 조합인 육십갑자(sexagenary cycle)로써 연월일시의 날짜와 시간을 헤아리는 간지력(干支曆)이 바로 그것이다.

그중에서 간지로 연을 표기하는 것을 간지기년(干支紀年), 월을 표기하는 것을 간지기월(干支紀月), 일을 표기하는 것을 간지기일(干支紀日), 시를 표기하는 것을 간지기시(干支紀時)라 하는데, 연월일시의 간지기법(干支紀法)은 각기 다른 경위로 성립되었다.

중국에서 최초로 역이 제작된 것은 상(尙)나라 이전부터라고 추정되지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역은 상나라의 일력(日曆)인 은력(殷曆)이다. 갑골문에 새겨진 은력은 태음태양력으로서 60갑자를 가지고 점복을 행한 날짜를 기록(紀日)하였다. 그러므로 간지기일법(干支紀日法)은 적어도 노(魯) 은공(隱公) 3년(B.C. 720) 2월 기사(己巳)일부터 청대 선통(宣統) 3년(1911)까지 단절 없이 계속 사용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일법으로 평가된다.[2]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을미사변(乙未事變, 1895), 무술변법(戊戌變法, 1898), 신해혁명(辛亥革命, 1911)처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경우 그 일이 발생한 해의 간지(干支)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2007년을 정해(丁亥)년 황금돼지의 해, 2010년을 경인(庚寅)년 백호(白虎)의 해, 2015년을 을미(乙未)년 청양(靑羊)의 해로도 인식한다.

또한 사람이 태어난 해의 지지인 띠와 유년(流年)의 지지 간의 관계를 통해 삼재년(三災年)을 인식하는 풍속을 비롯하여 사람의 생년월일시를

---

1) 김만태, 「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십이지에 대한 근원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제54호(2011), 260쪽.

2) 陳遵嬀, 『中國天文學史(제5책: 曆法·曆書)』(臺北: 明文書局, 1998), 40쪽.

간지로 치환한 후 그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인간 삶의 길흉과 관련된 사항을 추리하는 사주명리학도 한대(漢代) 이후 지금까지 동아시아 술수 문화에서 면면한 영향력을 발휘해오고 있다. 이 모든 현상이 간지기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일생의례의 일부로서 제의(祭儀) 축문의 "유세차갑자○○월△△삭(維歲次甲子○○月△△朔)……"이란 첫 구절에도 간지기년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가령 "유세차신묘십일월갑신삭(維歲次辛卯十一月甲申朔)……"이라면 "간지를 따라 정한 해(歲)의 차례(次例)가 신묘(辛卯)년인 해[3], 음력 11월 초하루(朔)인 갑신(甲申)일……"이란 뜻이다. 이 또한 간지기년과 관련되며, 그 외 많은 동아시아의 문화요소들이 간지기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역(曆)은 하늘과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는 해와 달과 별 등 천체들의 운행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그 결과를 수(數)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4]이자 날짜를 인위적으로 정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발명품으로서 문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고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역이란 개념의 창조를 통해서 천제(天帝)의 의지가 함축된 대자연의 질서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이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신조오 신조(新城新藏)의 『中國天文學史硏究』(1993)를 비롯하여 첸쥰규이(陳遵嬀)의 『中國天文學史(曆法・曆書)』(1998), 이문규의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2000), 심규철의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2003), 최진묵의 「漢代의 改曆過程과 曆譜의 성격」(2007) 등이 있다. 하지만 후속 논의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국의 다른 역법들과 마찬가지로 간지력도 고대 중국의 통치권에서 형성된 이래 다른 역법들과는 달리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민간신앙 분야 등에서 면면히 활용되어오고 있으며 그중 간지기년이 가장 근간이 된다.[5] 그러므로 한중일 등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술수(術

---

3) "가상의 세성(歲星)인 태세(太歲)가 12차(次)의 순서상 대화(大火), 즉 묘(卯)진에 드는 해"라는 뜻도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언급된다.

4)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문학과지성사, 2000), 19쪽.

5) 간지로 기월(紀月)하는 경우는 간지기년에 그 기준을 두는데 甲己년은 丙寅頭月(갑년과 기년은 丙寅이 정월), 乙庚년은 戊寅頭月(을년과 경년은 戊寅이 정월), 丙辛년은 庚寅頭月(병년과 신년은 庚寅이 정월), 丁壬년은 壬寅頭月(정년과 임년은 壬寅이 정월), 戊癸년은 甲寅頭月(무년과 계년은 甲寅이 정월)한다. 김만태, 『한국 사주명리

數) 분야 등을 보다 근본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지기년의 형성과정과 이와 관련된 세수(歲首)·역원(曆元)의 문제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Ⅱ. 간지의 기원과 술수로서의 역(曆)

1. 간지의 기원

간지력과 간지기년의 제반 형성 양상을 고찰하려면 먼저 간지의 기원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6] 고대 중국의 상(商)나라에서는 간지로 날짜를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간지의 기원은 현재로서는 갑골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간지의 기원에 관한 설들은 크게 대요(大撓)[7] 창제설, 천황씨(天皇氏)[8] 창제설, 황제(黃帝)[9]시대 하강설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황제(黃帝) 때의 사관(史官)인 대요가 간지를 창제했다는 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기(史記)』 「역서(曆書)」는 "황제가 대요에게 갑자(甲子)를 짓도록 하였다(黃帝使 […] 大撓造甲子)"[10]라고 기록하고 있다.

수(隋)나라 초기 소길(蕭吉)은 『오행대의(五行大義)』에서 "간지는 오행(五行)을 따라서 세운 것이니, 옛날에 황제 헌원이 나라를 다스릴 때 대요가 만든 것이다"[11]라고 하였다. 그리고 송조(宋朝)의 고승(高承)은 『사물기원(事物紀原)』에서 후한 때 채옹(蔡邕)이 쓴 『월령장구(月令章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대요가 간지를 제정했다고 하였다.

연구』(민속원, 2011), 269쪽.

6) 이하 간지의 기원은 김만태, 앞의 논문(2011), 272-276쪽을 근간으로 기술하였다.

7) 황제(黃帝) 헌원(軒轅) 때의 사관(史官)이자 황제의 스승이다.

8)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으뜸이다.

9)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으로 이름은 헌원(軒轅)이다.

10) 『史記』 권26 「曆書」 索隱.

11) 蕭吉, 『五行大義』(대유학당, 1998), 5쪽. "支干者, 因五行而立之, 昔軒轅之時, 大撓之所制也."

『월령장구』에서 말하기를 "대요가 오행의 이치를 탐구해서 북두칠성의 자루가 세워지는 바를 점쳤는데, 이에 처음으로 갑을(甲乙)을 만들어 해(日)에 이름을 붙여서 이르기를 '간(幹)'이라 하고, 자축(子丑)을 만들어 달(月)에 이름을 붙여서 이르기를 '지(支)'라 했으며, 간지(幹支)를 서로 배합하여 육순(육십갑자)을 완성했다"고 한다.[12]

대만의 명리학자 원수산(袁樹珊)도 『명리탐원(命理探原)』(1915)에서 "『오행대의』에서 이르기를 "간지는 오행을 따라서 세운 것이니, 옛날에 황제 헌원이 나라를 다스릴 때 대요가 만든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길의 견해를 따라 대요로부터 간지가 유래하였다고 본다."[13]

둘째는 천황씨가 간지를 창제했다는 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명대(明代)의 명리학자 만민영(萬民英)은 『삼명통회(三命通會)』(1578)에서 "천황씨의 1성 13인 형제가 반고씨를 이어 천하를 다스리고 […] 처음으로 간지의 이름을 제정하여 세성(歲星)의 소재를 정하니 […] 그러므로 간지의 이름은 천황씨 때 비로소 만들어졌다"[14]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청대(淸代)의 종연영(鍾淵映)이 펴낸 『역대건원고(歷代建元考)』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위로 천황씨가 처음 간지를 제정했다고 말한다.[15] 명대의 형운로(邢雲路)는 『고금율력고(古今律曆考)』에서 『세편(世編)』의 내용을 인용하여 "천황씨가 간지를 제정했는데 간(干)은 간(幹)이고 모(母)라 이름하고, 지(支)는 지(枝)이고 자(子)라 이름하며 이로써 태세(太歲)의 소재를 정했다"고 한다.[16]

셋째는 황제시대에 하늘에서 간지가 하강했다는 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남송(南宋) 말의 명리학자 서대승(徐大升)의 논술인 『자평삼명통변연원(子平三命通變淵源)을 근간으로 하는 『연해자평(淵海子平)』(1634)에서는 "이에 황제가 재계를 하고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방구(方丘)에서 땅에 예를 드리자 하늘에서 십간과 십이지를 내려주셨다. 이어

---

12) 高承, 『事物紀原』 권1. "月令章句曰: 大撓探五行之情, 占斗綱所建, 于是始作甲乙, 以名日謂之幹, 作子丑, 以名月謂之支, 支幹相配以成六旬."

13) 袁樹珊, 『命理探原』(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41쪽. "五行大義云: 枝幹者, 因五行而立之, 昔軒轅之時, 大撓之所制也."

14) 萬民英, 『三命通會』(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25-26쪽. "故天皇氏一姓十三人, 繼盤古氏以治 […] 始制干支之名, 以定歲之所在 […] 故干支之名, 在天皇時始制."

15) 鍾淵映, 『歷代建元考』 권2. "天皇氏, 繼盤古氏以治, 一姓十三人兄弟, 各一萬八千歲, 始制干支."

16) 邢雲路, 『古今律曆考』 권3. "世編云: 天皇氏制干支 干幹也 名曰母 支枝也 名曰子 以定歲之所在."

황제가 십간을 둥글게 펴서 하늘 모양을 본뜨고, 십이지를 모나게 펴서 땅 모양을 본떠 처음으로 간을 하늘로 삼고 지를 땅으로 삼았다"[17]고 한다.

이처럼 간지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십간·십이지를 조합해서 만든 육십갑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황제 때 대요가 만들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삼명통회』와 『연해자평』의 기록이 대표적인데, 만민영은 『삼명통회』에서 "황제가 […] 명하여 대요에게 오행의 본질을 탐구하게 하고, 두강(斗綱, 북두칠성의 자루)이 세워지는 것을 점치게 했으니, 이로부터 갑자(甲子)가 시작되었다"[18]고 한다. 『연해자평』은 "(황제로부터 간지가 유래한) 후에 대요씨가 후세 사람을 위하여 […] 마침내 십간과 십이지를 분배하여 육십갑자를 완성했다"[19]고 한다.

그 외 『진서(晉書)』「율력지(律曆志)」[20]와 『송서(宋書)』「역지(歷志)」[21], 『구당서(舊唐書)』「열전(列傳)」[22] 등에서도 황제의 스승인 대요가 간지와 갑자(육갑)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간지의 기원과 관련된 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신화와 전설상으로 전해지고 역사적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23]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간지 기원설 역시 신화와 전설상의 유래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만 상대(商代) 이전에 황제(黃帝)로 상징되는 고대 씨족사회에서 대요(大撓)로 상징되는 사관(史官) 집단이 그 당시 기사(記事)에 따라 날짜를 기록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매일의 날짜 표시 부호로서 십간과 십이지, 육십갑자를 처음으로 창출하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

17) 徐升, 『淵海子平評註』(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20쪽. "黃帝於是齋戒, 築壇祀天, 方丘禮地, 天乃降十干十二支. 帝乃將十干圓布象天形, 十二支方布象地形, 始以干爲天, 支爲地."

18) 萬民英, 앞의 책, 26쪽. "黃帝 […] 命大撓探五行之情 占斗綱所建 於是始作甲子."

19) 徐升, 『淵海子平評註』, 20쪽. "自後有大撓氏, […] 遂將十干十二支分配, 成六十甲子云."

20) 『晉書』 권17 「律曆志」 7. "大撓造甲子."

21) 『宋書』 권12 「歷志」 2. "黃帝使大撓造六甲."

22) 『舊唐書』 권94 「列傳」 44. "大撓造甲子."

23) 오제(五帝: 황제, 전욱, 제곡, 요, 순)는 대부분 고대 부계 씨족 공동사회의 우두머리이다. 한 민족의 초기 역사는 대부분 신화와 전설의 단계를 거친다. 신화를 역사 전설로 보는 것을 '신화의 역사화'라고 한다. 중국의 역사가, 사상가들 또한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여 몇몇 시조와 그 발전 계보를 허구적으로 구성하였다. 김원중, 『중국의 문화사』(을유문화사, 2003), 20쪽.

2. 술수로서의 역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점복(占卜)의 원전과도 같은 『주역(周易)』에서 "수(數)를 지극히 추리해서 미래를 아는 것을 점(占)이라 하고, 변화에 통하는 것을 사(事)"[24]라고 하여 점을 통해 미래를 알고 그 징후를 살펴서 피흉추길하는 것을 점사(占事)라고 하였다. 신비한 색채가 더해진 이러한 점복의 기법은 수술(數術) 또는 술수(術數)라고 칭해졌다.

술수학(術數學, occult sciences)은 고대사회에서 전문 학문이었으며 시대에 따라 그 함의(含意)가 조금씩 달라졌다. 술수학도 철학(philosophy)과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방식으로 우주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근본적 고뇌를 해결하고 인간 삶에 대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25] 즉, 술수는 우주와 자연에 순응하려는 인간 지혜의 한 발현인 것이다.

따라서 고대사회에서 역법은 술수의 한 분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역법의 가장 기본 역할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수시(授時)이다. 그래서 『상서(尙書)』「우서(虞書)·요전(堯典)」[26]에서도 "(요임금은) 희(羲)씨와 화(和)씨에게 명하시어 넓고 큰 하늘을 삼가 따라서 일월성신의 운행을 관찰하여 공경히 사람들에게 때를 알려주게 하셨다"[27]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위 관상수시(觀象授時)는 역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정치의 요체가 되었다.

또한 고대 중국 역법에서는 정치적 의의와 술수적 의미도 중요하였다. 따라서 고대 역법의 수많은 개변(改變)은 보다 정확한 천체관측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천체현상과 역법 간의 괴리와 오차를 해소하려는 진보적 이유도 있었으나 태초력(太初曆) 성립기까지는 오덕종시(五德終始)에 근거하여 왕조가 교체되면 역법도 바꾸는 수명개제(受命改制)도 개력의 주된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역법 상수의 정확성이 아니라 술수적 고려와

---

24) 『周易』「繫辭上傳」. "極數知來之謂占, 通變之謂事."

25) 김만태,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地支合 연구」, 『철학논집』 제31집(2012), 207쪽.

26) 대체로 史家들은 「堯典」이 늦어도 西周시대 작품이라고 본다. 이종호, 『유교 경전의 이해』(중화당, 1994), 43쪽; 유장림, 「五行學說의 起源과 形成」, 『유학연구』 제3집(1995), 3쪽.

27) 『尙書』「虞書·堯典」. "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편의성이 역법 채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진한(秦漢)시대에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 크게 흥행함에 따라 십간·십이지도 각각 음양오행으로 배속되고 이들 간의 상생·상극·성쇠 관계가 확정되었다. 이렇게 오행의 상생·상극 관념과 간지가 결합되면서 간지도 더 이상 단순한 부호가 아니라 신비화된 관념과 복잡한 술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동중서(董仲舒, B.C. 179?-B.C. 104?) 등에 의해 보다 완성된 체계를 갖춘 음양오행설과 천인감응론은 수리(數理)와 유비(類比) 등에 의거하여 한대 모든 사상계를 지배하는 기틀이 되었고, 천문·역법·음률·도교·유학 등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역법을 비롯한 당시의 술수는 모두 '하늘과 인간의 관계(天人之際)'에 주목한 것으로서 천도(天道)와 인사(人事)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되었다.

전한(前漢)의 유흠(劉歆, B.C. 53?-25)이 지은 중국 최초의 서적 분류목록인『칠략(七略)』에 의거하여 편술된『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 따르면 역(曆)은 여섯 가지 술수 유형 중에 속한다. 그 여섯 가지란 천문(天文), 역보(曆譜), 오행(五行), 시구(蓍龜, 시초점·거북점), 잡점(雜占), 형법(形法, 풍수지리·인상 등)을 말한다.

> 술수(術數·數術)는 모두 명당(明堂)에서 희(羲)씨와 화(和)씨가 행하던 사관(史官)과 복서(卜筮)의 직무이다. […]『역(易)』에서 이르기를 "진실로 그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도(道)가 헛되어 행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 옛날에 있던 책에 근거하여 술수를 정리해보면 여섯 가지이다.[28]

『한서』「예문지」는 이러한 여섯 가지 술수에 대해 각각 설명하면서 역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역보(曆譜·册曆·Almanacs)란 사계절의 질서를 정하고, 분지(分至: 춘분·추분·하지·동지)의 절기를 바로잡고, 일월오성의 주기를 산출함으로써 추위와 더위, 생장수장(生長收藏)의 실상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왕(聖王)은 반드시 역수(曆數)를 바로잡아서 삼통(三統, 歲首)[29]과 복색(服色)의 제도를 정하고 또한 일월오성의

---

28)『漢書』권30「藝文志」. "數術者, 皆明堂羲和史卜之職也. 史官之廢久矣, […] 易曰: "苟非其人, 道不虛行." […] 故因舊書以序數術爲六種."

29)『論語集註』「爲政」. "삼통(三統)이란 하(夏)나라의 정월은 인월(寅月)로 하였으니 인통(人統)이 되고, 상(商)나라의 정월은 축월(丑月)로 하였으니 지통(地統)이 되고, 주

회합, 흉하고 궁색한 근심, 길하고 융성한 기쁨을 찾아 알아내는데 그 술(術)이 모두 여기(역보)에서 나온다. 이것(역보)은 성왕이 천명(天命)을 아는 술수이다. 천하의 지극한 재능이 아니면 그 누가 여기에 간여할 수 있겠는가![30]

위『한서』「예문지」의 내용에 따르면 역(曆)은 '성인이 천명을 알아채는 술(聖人知命之術)'로서 곧 '역술(曆術)'이라는 것이다. 역의 많은 내용과 작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다.[31] 원봉(元鳳) 3년(B.C. 78) 태사령 장수왕(張壽王)이 소제(昭帝)에게 올린 글에서 "역(曆)이란 천지의 큰 기강이며 상제(上帝)가 만든 것입니다"[32]라고 말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소결론적으로 역·역술은 1년의 날짜를 차례대로 적어놓은 일력(日曆)을 편제하고, 연월일시 등의 기준을 정하는 법(紀法)을 제정하고, 윤달과 절기 등을 추산하는 기본적 역할뿐만 아니라 연월일시라는 시간의 관념 아래 이와 연계된 인사(人事)의 길흉과 의기(宜忌) 등을 알려주는 술수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33]

Ⅲ. 기년법의 양상과 간지기년

간지력의 근간으로서 오늘날 간지기년은 처음부터 체계가 정연(整然)하고 널리 채용된 것이 아니었다. 진한시대까지는 각종 다양한 기년법이 존재했으며 그 시행 범위도 점차 확장되어갔다. 그러나 세명(歲名)이 제각기 달랐으므로 혼잡하였는데 이를 일거에 통일시킨 것이 바로 전한 말 유흠(劉歆, B.C. 53?-23)의 초진법(超辰法)이었다.[34] 초진의 기년법에 앞서 시행되었던 대표적 기년법들은 다음과 같다.

(周)나라의 정월은 자월(子月)로 하였으니 천통(天統)이 됨을 이른다(三統謂夏正建寅爲人統, 商正建丑爲地統, 周正建子爲天統)."

30)『漢書』권30「藝文志」. "曆譜者, 序四時之位, 正分至之節, 會日月五星之辰, 以考寒暑殺生之實. 故聖王必正歷數, 以定三統服色之制, 又以探知五星日月之會, 凶阨之患, 吉隆之喜, 其術皆出焉. 此聖人知命之術也. 非天下之至材, 其孰與焉."

31) 歷과 曆 둘 다 책력(冊曆)을 지칭하지만 歷은 과거사를 기록하고, 曆은 미래사를 예보하는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32)『漢書』권21상「律曆志」1상. "元鳳三年, 太史令張壽王上書言: "曆者, 天地之大紀, 上帝所爲. 傳黃帝調律曆, 漢元年以來用之.""

33) 兪曉群,『數術探秘: 數在中國古代的神秘意義』(北京: 三聯書店, 1995), 152쪽.

34) 新城新藏 著, 沈璿 譯,『中國天文學史硏究』(臺北: 翔大圖書有限公司, 1993), 505쪽.

중국에서 최초의 기년법은 춘추시대에 왕공(王公)이 즉위한 연차(年次)에 의하여 기년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동주(東周)시대의 개막인 B.C. 770년은 주(周) 평왕(平王) 원년(元年)으로 원·2·3·4 등의 서수(序數)로써 연을 차례대로 기록하였다. 한(漢) 무제(武帝)는 건원(建元) 원년(B.C. 140), 원광(元光) 3년(B.C. 132) 등과 같이 연호(年號)를 가지고 기년하였다.[35] 그래서 고염무(顧炎武, 1613-1682)는 "옛사람들은 갑자(甲子)로써 해(歲)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 (십간과 십이지의) 22글자로써 옛사람들은 날(日)은 매겼으나 해(歲)는 매기지 않았다"[36]고 하였다.

전국시대에 이르러 세성(歲星)의 공전 주기가 약 12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12년은 12진(辰)·12지(支)·12차(次)의 수와도 합치되므로[37] 적어도 전국시대 중기부터는 세성의 위치로써 연도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간지기년법에 앞서 세성(歲星)기년법과 태세(太歲)기년법이 먼저 있었다.

세성기년법은 세성이 12년마다 하늘을 한 바퀴 돈다(周天)[38]라는 규칙에 근거해서 하늘(천구의 적도)을 12등분하여 12차(次)로 삼아서 매년 세성의 위치를 표시해 해를 매기는(紀年) 것이다. 그러므로 세성기년을 세차(歲次)기년이라고도 한다. 12차는 역법상의 시간 주기이면서 천구상의 공간 구획이기도 하다. 12차의 명칭은 성기(星紀)·현효(玄枵)·추자(娵訾)·강루(降婁)·대량(大梁)·실침(實沈)·순수(鶉首)·순화(鶉火)·순미(鶉尾)·수성(壽星)·대화(大火)·석목(析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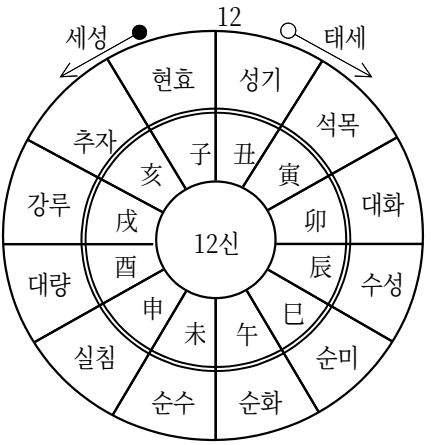

그림1-12차와 12진 세성과 태세의 대응관계 [부찰지리도(俯察地理圖)]

35) 王力, 『中國古代文化常識』(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5), 19쪽.

36) 顧炎武, 『日知錄』 권20. "古人不以甲子名歲: 爾雅疏曰, 甲至癸爲十日, 日爲陽. 寅至丑爲十二辰, 辰爲陰. 此二十二名, 古人用以紀日, 不以紀歲."

37) 胡廣, 『書經大全』 권1 「虞書」. "辰以日月所會 分周天之度 爲十二次也."

38) 『史記』 권27 「天官書」. "세성이 매년 30 7/12°를 운행하고 대략 매일 1/12°를 운행하여 12년이면 하늘을 일주한다(歲行三十度十六分度之七, 率日行十二分度之一, 十二歲而周天)."

등이다. 12차의 일부 명칭과 관념은 이전에도 있었으나 완전한 명칭은 『한서(漢書)』「율력지(律曆志)」에 처음으로 나온다.

12차에 관한 내용이 전한 때의 『회남자(淮南子)』「천문훈(天文訓)」과 「시칙훈(時則訓)」, 『사기(史記)』「천관서(天官書)」와 「역서(曆書)」 등에는 보이지 않다가 후한 때의 『한서』「율력지」에 보이는 걸로 보아 12차의 개념은 전국시대 중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으나 12차와 28수의 배합은 후한 초에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39]

『춘추좌전(春秋左傳)』「양공(襄公) 30년」에 "자우가 "강아지풀이 아직도 남아 있는가?"라고 말하였다. 이때 세성이 강루에 있었다(子羽曰, 其莠猶在乎. 於是歲在降婁)"[40]라는 기사가 나오고, 『국어(國語)』「진어(晉語)4」에는 "세성이 수성과 순미에 이를 때면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이오! 하늘이 명하셨으니 다시 수성에 이를 때면 반드시 제후들의 힘을 얻게 될 것이오(歲在壽星及鶉尾, 其有此土乎. 天以命矣, 復於壽星, 必獲諸侯)"[41]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들이 바로 세성기년법의 초기 예이다.[42]

세성기년법 이후에는 12지나 28수로 세성의 위치를 표시하고, 12지로 가상의 세성(歲星神靈)의 위치를 표시하여 한 해의 명칭(歲名)을 기재하였다. 가상의 세성을 『사기』는 세음(歲陰), 『회남자』는 태음(太陰), 『한서』와 『이아』는 태세(太歲)라고 한다.[43] 그래서 이런 기년법을 태세기년법이라고 한다.

세음 · 태음 · 태세는 서→동으로 우행(右行)하는 세성과 반대로 운행한다고 설정하는 가상의 천체로서 세성과 같은 공전주기를 갖는다. 가상의 천체를 설정하는 이유는 마치 태양의 운행은 서→동이지만 태양의 출몰은 동→서로 향하는 것처럼 태양이나 세성의 운행과 반대로 시간적인 흐름이 전개되기 때문이다.[44]

부연하면 세성은 서→동으로 운행하므로 이전부터 사람들이 알고

---

39) 陳遵嬀, 『中國天文學史(제2책: 星象編)』(臺北: 明文書局, 1985), 167-168쪽.

40) 杜氏注, 孔穎達疏, 『春秋左傳注疎』 권40.

41) 韋昭注, 『國語』 권10.

42) 그러나 『춘추좌전』과 『국어』 중의 세성기년의 예는 전한 말 유흠(劉歆, B.C. 53?-23)의 위탁(僞託)이라고 보기도 한다. 王力, 앞의 책, 20쪽.

43) 김만태, 앞의 책, 264쪽.

44) 위의 책, 264쪽.

있던 12지궁이 동→서로 향하는 것과 방향·순서가 상반되어 역년(曆年)을 표기하는 데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성과 대응하여 동→서로 운행하는 가상의 천체로 태세(太歲)[45]를 설정하여 12지궁과 방향·순서를 일치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태세기년법의 발단이었다.

태세기년법에서는 12지로 가상 천체의 위치를 표시한 세명(歲名)을 천간의 세양(歲陽)과 조합하여 기년하였다. 예를 들어 표1과 표2를 보면 『사기』의 경우 갑(甲)의 세양은 언봉(焉逢)이고 자(子)의 세명은 곤돈(困敦)이므로 언봉곤돈(焉逢困敦)은 갑자(甲子)년이 되며, 을(乙)의 세양은 단몽(端蒙)이고 축(丑)의 세명은 적분약(赤奮若)이므로 단몽적분약(端蒙赤奮若)은 을축(乙丑)년이 된다.

표1-고대 문헌의 세양(歲陽)

年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歲陽 『이아』	알봉 (閼逢)	전몽 (旃蒙)	유조 (柔兆)	강어 (强圉)	착옹 (著雍)	도유 (屠維)	상장 (上章)	중광 (重光)	현익 (玄黓)	소양 (昭陽)
歲陽 『사기』	언봉 (焉逢)	단몽 (端蒙)	유조 (游兆)	강오 (彊梧)	도유 (徒維)	축리 (祝犁)	상횡 (商橫)	소양 (昭陽)	횡애 (橫艾)	상장 (尙章)

표2-고대 문헌의 세명(歲名)·태세(太歲)·태음(太陰)·세음(歲陰)

歲名[46]	섭제격 (攝提格)	단알 (單閼)	집서 (執徐)	대황락 (大荒落)	돈장 (敦牂)	협흡 (協洽)	군탄 (涒灘)	작악 (作噩)	엄무 (閹茂)	대연헌 (大淵獻)	곤돈 (困敦)	적분약 (赤奮若)
太歲 『이아』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太陰 『회남자』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歲陰 『사기』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45) 『이아(爾雅)』「석천(釋天)」과 『한서(漢書)』「천문지(天文志)」에서는 태세(太歲), 『회남자(淮南子)』「천문훈(天文訓)」에서는 태음(太陰), 『사기(史記)』「천관서(天官書)」에서는 세음(歲陰)이라고 불렀다.

46) 세명의 표기는 『이아』「석천」을 근거로 하였다. 대황락·협흡은 『사기』「천관서」에는 大荒駱·叶洽으로 되어 있다. 작약은 『한서』「천문지」에는 作詻, 『회남자』「천문훈」, 『사기』「역서」·「천관서」에는 作鄂으로 되어 있다. 엄무는 『사기』「역서」에는 淹茂, 『한서』「천문지」에는 掩茂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전한 말 유흠에 의해 세성의 실제 공전주기가 11.86년으로 밝혀지면서 세성이 매년 천구의 적도상을 1차씩 규칙적으로 운행하여 12년에 하늘을 한 바퀴 돈다는 세성기년법과 태세기년법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실상 세성은 12년마다 규칙적으로 하늘을 일주하는 것이 아니라 11.8622년마다 하늘을 일주하므로 매년 천구의 적도를 이동하는 범위는 하나의 성차(星次)보다 조금 더 많고 이것이 점차 쌓여서 약 86년이 되면 하나의 성차를 더 초과하게 되는데 이것을 초진(超辰)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유흠은 초진법(超辰法)을 주장했으며, 후한 초 54년에 비로소 이러한 오차를 수정했다.[47] 이로 인해 그동안 햇수를 표기했던 태세기년법은 세성의 실제 운행과 결별했으며, 이때부터 세성의 운행과는 상관없이 60간지의 순서대로 햇수를 표기하기 시작하였다.[48] 이것이 바로 간지기년법이다. 그러나 간지기년이 일반화된 것은 태초력(太初曆)[49]이 폐지되고 후한의 장제(章帝) 원화(元和) 2년, 기원후 85년 사분력(四分曆)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부터이다.[50] 이때부터 비로소 동아시아의 술수분야는 역법과 연결고리를 갖게 되었다.

사분력은 기존 태초력(삼통력)의 부정확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고, 또 그동안 축적된 천체 운행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실제 개력(改曆)과정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참위(讖緯)의 색채가 강하게 반영되었다.[51] 이 점에 대해 『후한서(後漢書)』「율력지(律曆志)」는 "사분력은 본시 도참(圖讖)에서 비롯되었다(四分曆本起圖讖)"[52]라고 지적하였다.

고대 중국의 천문학자들은 행성들이 천구상의 같은 위치에서 만나는 회합(會合)주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다.[53] 그중 목성과 토성이

---

47) 유흠은 자신의 초진에 의한 간지기년법이 실제 천상(天象)의 법칙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초진법에 의한 실제 추산과 기사(記事)에 기록된 연도 간에 1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불편함이 초래되었고 결국 유흠의 초진법안은 실패하기에 이르렀다. 新城新藏 著, 沈璿 譯, 앞의 책, 518-519쪽.

48) 陳遵嬀, 앞의 책(제5책: 曆法·曆書), 29-31쪽.

49) 등평(鄧平)·낙하굉(落下閎)의 81분력이 채택되었으며, 그 후 유흠(劉歆)에 의해 증보되면서 삼통력(三統曆)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B.C. 104-A.D. 84년간 시행되었다.

50) 陳遵嬀, 앞의 책(제5책: 曆法·曆書), 31쪽 주 1, 126쪽.

51) 이문규, 앞의 책, 244쪽.

52) 『後漢書』 권12 「律曆志」 2.

53) 陳久金·楊怡, 『中國古代天文與曆法』(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0), 120쪽.

황도상의 거의 같은 위치에 거듭 되돌아오는 주기가 60년에 극히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목성의 공전 주기가 약 12년(11.86년)인 데 대하여 토성은 약 30년(29.46년)이기 때문이다.[54]

그림2-대회합의 삼각형
케플러(Johannes Kepler), 『뱀주인자리 발에 있는 신성(*De Stella Nova in Pede Serpentarii*)』(1606)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Great_conjunction

실제로 60갑자는 오행성 중 가장 속도가 느린 목성과 토성이 천구의 황도상에서 회합하는 기간과 매우 일치한다. 목성과 토성의 근접 회합은 20년마다 발생하는데 네 번째 회합은 황도대의 거의 같은 별자리에서 일어난다. 이는 서양의 천문학에서도 인식되었던 '대회합의 삼각형(trigon of Great Conjunctions)'[55]을 구성한다.[56]

지구를 중심에 놓고 천구를 그려보면 목성과 토성은 지구 주위의 커다란 공전 궤도를 따라 회전한다. 20년마다 목성은 토성을 따라잡은 다음 지나가는데(합) 그 후에 두 행성 간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합이 항상 황도상의 동일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네 번째 합(1643)은 첫 번째(1583)와 거의 같은 지점에서 발생했지만 동일한 지점은 아니었다. 다섯 번째도 두 번째와 거의 같았지만 역시 동일하지는 않았다. 결국 닫힌 삼각형을 만들지 못하지만 그 대신 회전하는 유사(類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57]

---

54) 이은성, 『역법의 원리분석』(정음사, 1985), 198쪽.

55) 목성의 공전주기는 약 11.86년이고 따라서 1년 동안 움직이는 각속도는 360÷11.86≒30.35도이다. 토성의 공전주기는 약 29.46년이고 따라서 1년 동안 움직이는 각속도는 360÷29.46≒12.22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처음 목성과 토성의 회합이 있은 뒤 두 번째 회합은 20년 뒤 목성이 약 607도, 즉 1회 공전한 뒤 약 247도를 더 이동하고 토성이 약 244도 이동했을 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 번째 회합은 40년 뒤 목성이 3회 공전한 뒤 약 134도를 더 이동하고 토성이 1회 공전한 뒤 약 128도를 더 이동했을 때이다. 네 번째 회합은 60년 뒤 목성이 5회 공전한 뒤 약 21도를 더 이동하고 토성이 2회 공전한 뒤 약 13도를 더 이동했을 때, 즉 첫 회합과 같은 위치일 때이다. 이렇듯 목성과 토성의 회합은 대략 0도, 240도, 120도 이동하는 삼각형 모양을 그린다.

56) 앤서니 애브니 지음, 최광열 옮김, 『시간의 문화사』(북로드, 2007), 506-507쪽.

후한 초 초진법 실시로 인한 실제 추산 역년(曆年)과 세명(歲名)의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를 비롯하여 목성과 토성의 60년 대회합주기(60-year-period of Great Conjunctions of Jupiter and Saturn) 등을 근거로 육십갑자로써 역년을 나타내는 역법인 간지기년은 당시 유행하던 참위적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사분력이 85년 개정 시행되면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Ⅳ. 간지기년의 세수(歲首)와 역원(曆元) 문제

세수(歲首)는 한 해의 기점으로서 정월(正月)을 의미한다. 먼 옛날부터 역법에서는 맹춘(孟春), 즉 초봄의 인월(寅月)을 정월로 삼아왔다.[58] 춘추전국시대에는 이른바 하력(夏曆)·은력(殷曆)·주력(周曆)이 있었는데 "하력은 1월(寅月)을 정월(세수)로 삼았고, 은력은 12월(丑月)을 정월로 삼았으며, 주력은 11월(子月)을 정월로 삼았다."[59] 세수의 월건(月建)이 서로 다르므로 삼정(三正) 또는 삼통(三統)이라고 불렀다. 정(正)은 정월(正月)로서 한 해의 첫째 달인 세수를 말한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에 이러한 역제(曆制)는 전혀 통일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상·주의 삼정은 차례대로 세수를 개정한 것이 결코 아니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상이하게 사용되었다.[60]

삼통(三統)이란 하나라의 정월은 인월(寅月)로 하였으니 인통(人統)이 되고, 상나라의 정월은 축월(丑月)로 하였으니 지통(地統)이 되고, 주나라의 정월은 자월(子月)로 하였으니 천통(天統)이 됨을 이른다.[61]

---

57) 키티 퍼거슨 지음, 이충 옮김, 『티코와 케플러』(오상, 2004), 224-226쪽.

58) 『史記』 권26 「曆書」. "昔自在古, 曆建正作於孟春."

59) 『史記』 권26 「曆書」. "夏正以正月, 殷正以十二月, 周正以十一月." 하력(夏曆)에 의거하여 기월(紀月)한 것이다. 이후의 숫자 기월들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하력에 의거한 것이다.

60) 王力, 앞의 책, 24-25쪽.

61) 『漢書』 권36 「楚元王傳」. "王者必通三統." 顔師古注引 張晏曰: "一曰天統, 謂周(以)十一月建子爲正, 天始施之端也. 二曰地統, 謂殷以十二月建丑爲正, 地始化之端也. 三曰人統, 謂夏以十三月建寅爲正, 人始成之端也."

진(秦)이 중국을 통일한 후 10월(亥月)을 세수로 삼았으며, 한초(漢初)에도 아직 겨를이 없어 진의 역법을 그대로 따랐다.[62] 이때의 역법은 전욱력(顓頊曆)이며 고사분력(古四分曆)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B.C. 2세기『회남자』「천문훈」에서 "하루에 1도씩 하늘을 주행(周行)하는데 […] 거듭하여 365와 1/4도를 주행하면 1년이 된다. 천일(天一: 태음)의 원시(元始)는 인월(寅月)의 정월이다"[63]라고 기술한 것도 한대 초 당시 건인세수(建寅歲首)가 일반적이었음을 반증해주는 내용이다.

또한 한무제(漢武帝) 원봉(元封) 7년(B.C. 104)에 이르러 태초력(太初曆)으로 고쳐 바꾸면서 하정(夏正)에 따라 인월을 세수로 삼았다. 부연하면 원봉 7년, 동지(冬至)가 드는 11월 초하루 자시(子時)를 기하여 태초 원년으로 개정했으며, 이해 12월 말을 태초 원년의 끝으로 규정하였고, 이후부터는 매년 맹춘(孟春) 정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계동(季冬) 12월을 한 해의 끝으로 삼았다.[64]

즉, 태초력에서는 고대의 일부 관습에 따라 동지에 처음으로 새 달이 뜨는 날을 1년의 시작으로서 11월에 고정시킨 후, 동지와 춘분의 정확한 중간 지점인 입춘(立春)을 맹춘 정월이 시작되는 한 해의 시작으로 다시 개혁하였던 것이다.

그 후 왕망(王莽, 재위 8-23)과 위(魏) 명제(明帝, 재위 226-238) 때 은정(殷正)으로 잠시 바꾸고, 당(唐) 무후(武后, 재위 683-704)와 숙종(肅宗, 재위 756-761) 때 주정(周正)으로 잠시 바꾼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정(夏正)이 계속 사용되어오고 있다.[65]

이처럼 지금까지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건인세수에 대해 천개어자(天開於子)의 이치에 따라 천도(天道)의 운행은 자(子)에서 시작되므로 마땅히 한 해의 운행도 자월(子月)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인월을 세수로 삼는 것은 역법의 제정에 따른 인사의 결과이므로 천도의 불변 이치에 어긋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

62)『史記』권26「曆書」. "亦因秦滅六國 […] 而正以十月 […] 漢興 […] 皆未遑, 故襲秦正朔服色."

63)『淮南子』권3「天文訓」. "日行一度以周於天 […] 反覆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而成一歲, 天一元始正月建寅."

64) 陳遵嬀, 앞의 책(제5책: 曆法 · 曆書), 118쪽.

65) 王力, 앞의 책, 26쪽.

천도(天道)의 운행은 자(子)에서 이루어지므로 하늘은 자에서 열리는 것(天開於子)이다. 그러므로 그 본원을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역대로 한 해의 첫째 달을 정하는데(建正) 비록 삼통(三統)의 구별은 있었으나 역법을 정하는 것(治歷)은 인사(人事)이고, 천도는 천운(天運)으로서 그 쓰임이 각기 달랐으니 변통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세상에서는 모른다. […] 만약 천도의 운행을 취한다면 당연히 자(子)로부터 시작하고 해(亥)에서 끝마쳐야 한다. 이것이 천도와 자연의 대운(大運)이며 고금에도 변하지 않는 정리(正理)이다.[66]

그러나 건인세수의 배경에는 인월을 세수로 하는 역법의 제정·시행이 먼저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며, 오행상생론(五行相生論)이 보다 먼저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최초로 가장 성숙된 오행설이 나타나고, 보다 체계적으로 오행설을 기록하고 있는 전국시대의 『관자(管子)』에서는 오행 관념이 비로소 사시(四時) 및 오방(五方)과 결합되며 이를 설명하는 체계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오행이 천시(天時)의 발현인 계절의 순차와 각 계절의 특성을 주관한다고 인식되었다. 그래서 상생관계에 따른 지금의 오행 순서인 '목(봄)→화(여름)→토→금(가을)→수(겨울)'도 『관자』에서 비로소 확정되었다.

이렇게 『관자』에서 정립된 사시와 오행 사상은 후대 『여씨춘추』·『황제내경』·『춘추번로』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생장화수장(生長化收藏)의 이치에 따라 봄이 천시(天時)가 드러나는 계절의 맨 앞에 놓이게 되었고, 입춘이 속해 있는 인월(寅月)을 한 해의 기점인 세수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67] 그러므로 건인세수가 천도와 자연의 운행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천시의 발현과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역의 기준점인 역원(曆元)과 관련하여 황제의 즉위년인 B.C. 2697년 갑자(甲子)년을 역원으로 보기도 한다. 황제 헌원은 B.C. 2704년경에 태어나 B.C. 2697년 제왕이 되었다고 한다.[68] 또한 복희(伏羲)

---

6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天地篇·天文類·天文總說·天道自子爲運辨證說. "天道之運, 自子爲者, 卽天開於子. 故取其本原而然也. 歷代建正, 雖有三統之別, 治歷則人事也, 天道則天運也, 其所用各殊, 宜有變通, 而世無知者. […] 若取天道之運行, 當以自子爲始, 終之於亥. 此是天道自然之大運, 而古今不易之正理也."

67) 김만태·신동현, 「명리학에서 시간(時間)에 관한 논점 고찰: 자시(子時)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59집(2014), 455-456쪽.

68) 심규철,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125-127쪽.

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고 제국의 영토를 자신이 통치하던 61번째 해, 즉 B.C. 2637년 갑자년에 60갑자를 도입하여 역법을 규정했다고도 한다.[69] 그러나 역원이 상제로부터 기원하였다는 설 역시 간지기원설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로 믿기는 어렵고 신화와 전설상의 유래로 봐야 할 것이다.

기년법의 역원과 관련하여 몇 개의 갑인원(甲寅元), 즉 갑인년 역원이 등장한다. 신조오 신조는 다음 4종의 기년법과 역원을 제시하였다.[70] 하지만 기년법마다 제각기 다른 갑인원으로 말미암아 역사상 실제 세명의 표기에는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다.[71]

① 세성(歲星)기년법: B.C. 365년(현재 간지력으로는 丙辰년)
② 전욱력(顓頊曆)기년법: B.C. 366년(현재 간지력으로는 乙卯년)
③ 은력(殷曆)기년법: B.C. 367년(현재 간지력으로는 甲寅년)
④ 태초력(太初曆)기년법: B.C. 104년(현재 간지력으로는 丁丑년)[72]

『회남자』「천문훈」에서 "태음(太陰)의 역원은 갑인에서 시작된다."[73] "모두 20기(紀) 1,520년으로 대종(大終)이 되며 삼종(三終)하여 일월성신은 다시 갑인원에서 시작된다"[74]라고 한 것도 이러한 갑인원 배경과 연관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태초력에서는 역원을 원봉 7년(B.C. 104) 11월 1일 갑자(甲子)일 자시(子時)를 기점으로 개정하였다. 이를 『사기』「역서」에서는 "11월 초하루 갑자일의 아침에 동지가 드니 마땅히 원봉 7년을 태초(太初) 원년으로 고친다. 연명은 언봉섭제격(焉逢攝提格)이고, 월명은 필취(畢聚)이고, 일은 갑자(甲子)가 되고, 초하루 자시(子時)가 동지이

사마천이 『사기(史記)』「오제본기(五帝本紀)」에서 황제를 역사적 실존 인물로 규정한 이래 많은 논란이 있는데 현재 중국 학계에서는 황제를 두고 상고시대 씨족연맹의 영수로 실존한 인물 내지 그로부터 비롯된 씨족 토템으로 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동준, 『중국문명의 기원』(인간사랑, 2005), 102쪽.

69) 앤서니 애브니 지음, 최광열 옮김, 앞의 책, 496쪽.

70) 이에 대해 심규철은 앞의 논문, 127쪽 각주 331에서 기술하였다.

71) 新城新藏 著, 沈璿 譯, 앞의 책, 506쪽.

72) 태초 원년은 B.C. 104년이지만 실제로 태초력의 기준이 되는 태초 0년은 B.C. 105년으로 병자(丙子)년이다.

73) 『淮南子』 권3 「天文訓」. "太陰元始, 建于甲寅."

74) 『淮南子』 권3 「天文訓」. "凡二十紀一千五百二十歲大終, 三終日月星辰, 復始甲寅元."

다(十一月甲子朔旦冬至已詹, 其更以七年爲太初元年. 年名焉逢攝提格, 月名畢聚, 日得甲子, 夜半朔旦冬至)"[75]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말미의 '역술갑자편(曆術甲子篇)'이라는 역보(曆譜)에서도 "太初元年, 歲名焉逢攝提格, 月名畢聚, 日得甲子, 夜半朔旦冬至. 正北"이라고 적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초 원년, 세명언봉섭제격(太初元年, 歲名焉逢攝提格)'은 태초개력을 시행한 태초 원년(B.C. 104)의 세양(歲陽)은 언봉(焉逢)으로 갑(甲)이고, 세음(歲陰)은 섭제격(攝提格)으로 인(寅)이므로 갑인(甲寅)년이라는 뜻이다.[76] '월명필취(月名畢聚)'는 월간이 갑(甲)인 정월이라는 뜻으로 한 해의 기점인 세수를 인월로 보면 갑인(甲寅)월이고, 자월로 보면 갑자(甲子)월이 된다.[77] 태초 개원(改元) 최초에 잠시 주정(周正)에 따라 건자(建子)로 기준을 삼았으니[78] 갑자월이 된다. '일득갑자, 야반삭단동지, 정북(日得甲子, 夜半朔旦冬至, 正北)'은 초하루인 갑자(甲子)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각인 자시(子時)에 동지점이 정확히 북방에 들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갑인년 11월 동짓달 초하루(갑자월 갑자일), 정확히 말하면 바로 한 해 전의 11월 동짓달 초하루 갑자일, 자시에 정확히 동지가 들었다. 실제로 태초력의 기준이 되는 동지는 태초 원년(B.C. 104)의 동지가 아니라 바로 전해, 즉 태초 0년(B.C. 105)의 동지이다.[79] 그리고 바로 이때를 새로운 역의 기준점으로 삼았다. 이를 기점으로 원봉 7년을 태초 원년으로 변경했으며, 과도기적으로 건자(建子)를 거쳐 이해 12월 말을 태초 원년의 끝으로 규정하였고, 이후부터는 매년 인월(寅月)을 정월로 삼았다.

태초력의 역원을 간지로 표현하며 갑인(甲寅)년 갑자(甲子)월 갑자(甲子)일 갑자(甲子)시가 된다. 태초 원년은 B.C.104년이지만 실제로 태초력의 기준이 되는 태초 0년은 B.C.105년으로 병자(丙子)년이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병자년을 태초 원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80] 태초 개원을

---

75) 『史記』 권26 「曆書」.

76)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의 표1과 표2를 참고하기 바란다.

77) 필(畢)은 월양(月陽)으로서 갑(甲)을, 취[聚, 또는 추(陬)]는 정월을 의미한다. 이렇게 월명(月名)을 표기하는 방법은 『이아』 「석천」에 등장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만태, 앞의 책, 269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78) 『史記』 권26 「曆書」 索隱. "仍以周正建子爲十一月朔旦冬至, 改元太初焉."

79) 이은성, 앞의 책, 20쪽.

80) 『사기』 「역서」 색은도 "『한지』에 의거하면 태초 원년의 해는 병자이다(如漢志, 太初元

통해 갑인년으로 개칭되었던 것이다. 건인세수와 마찬가지로 갑인원도 목(木)에서 시작하는 오행상생론의 정립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한서』「율력지(律曆志)」에 "태초력은 달의 회삭현망(晦朔弦望: 그믐-초하루-(상하)현-보름)이 모두 긴밀하고, 일월은 반쪽짜리 구슬이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고(日月如合璧), 오성은 꿰어 이어진 구슬과 같다(五星如連珠)"[81]는 기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맹강(孟康)이 주(注)하기를 "태초 상원(上元) 11월 초하루 갑자일 자시에 칠요(七曜: 일월오성)가 모두 28수의 두(斗)·우(牛)[82] 분도에 모였는데, 밤새도록 구슬들을 꿴 것처럼 가지런히 정렬하였다"[83]고 한다. 이는 태초력 개원 당시 일월오성 천체의 운행 상황을 기술한 것이다. 당시에 천상(天象)은 일월과 오성이 북방에 일직선으로 줄을 지었는데, 이는 점성학에서 대단히 길하게 여기는 시간으로, 이를 개원추산의 기점으로 삼은 것은 태초력에 신비적 권위를 더하려고 했던 것이다.[84]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만민영은『삼명통회』에서 간지기년의 갑자(甲子)년 역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대요(大撓)가 북두칠성 자루(斗柄)로 점쳐서 갑자(甲子)를 만들었으므로 반드시 천지가 처음으로 시작된 시기까지 멀리 소급할 수 있다. 그러니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역원(曆元)이 된다. 북두칠성 자루로 점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12달만 겨우 정할 수 있었을 뿐이다. 천지가 처음 개벽할 때 일월은 구슬이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았고, 오성은 구슬을 꿴 것과 같았는데 모두 견우(牽牛)의 첫째 별자리(牽牛之初: 丑方)에서 일어났고, 이후 동지의 야반(子方)으로 정할 수 있었다.[85]

즉, 시간적으로 4갑자(四甲子)인 때에 일월오성이 천구의 북쪽인 자방(子

年歲在丙子)"라고 하였다. 『史記』 권26 「曆書」 索隱.

81) 『漢書』 권21상 「律曆志」 1상. "太初曆晦朔弦望皆最密, 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

82) 축방(丑方)에 위치한다.

83) 『漢書』 권21상 「律曆志」 1상. "孟康曰: 謂太初上元, 甲子夜半朔旦冬至時, 七曜皆會聚斗牽牛分度, 夜盡如合璧連珠也."

84) 兪曉群, 앞의 책, 158쪽.

85) 萬民英, 앞의 책, 論干支源流, 27쪽. "大撓占斗柄而造甲子, 必能遠遡天地之始, 故以年甲子, 月甲子, 日甲子, 時甲子爲曆元. 不思占斗柄, 止可定十二月. 天地初開闢, 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 俱起於牽牛之初, 而後可以定夜半之冬至."

方)에서 일직선으로 정렬하였으며, 이때가 바로 간지기년의 역원이 된다는 상징적 설명이다. 명대의 형운로가 지은 『고금율력고(古今律曆考)』에도 비슷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 상고(上古) 천정(天正: 갑자년)의 갑자일 초하루 자시 동지 때, 일월은 구슬이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았고 오성은 꿰어 이어진 구슬과 같았으며 모두 자방(子方)에 모여 역원이 되니 곧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 정각으로 여분이 없었다.[86]

청대의 명리학자 요기형(寥冀亨)도 『자평사언집액(子平四言集腋)』에서 "상고의 역원은 4갑자에서 시작되었으니 연월일시의 사주는 모두 이에 근본을 둔다"[87]라고 하였다. 실제로 5성은 늘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5성이 28수 중의 어떤 별자리에 모여 있으면 천하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88]

태초개력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력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후한에 이르러 장제 원화 2년(85)에 사분력(四分曆)으로 개력을 단행하였다. 이때부터 세성의 실제 운행과 상관없이 초진법의 시행으로 실제 역년의 추산과 기사 연도 간에 1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목성과 토성의 60년 대회합주기 등을 근거로 육십갑자로써 역년을 표기하는 간지기년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사분력은 1년을 $365\frac{1}{4}$일로 하였다. 그래서 사분력이라고 명칭이 되었다. 1년의 길이가 간단한 분수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계산에 더 편리하나 실제 그 배경에는 당시 유행하던 참위설(讖緯說)의 영향이 있었다. 즉, 후한의 정치와 학술에서 참위설의 융성이 원화개력(元和改曆)의 과정에서 반영되었다. 『후한서』「율력지」에 실린 원화개력의 조칙문(詔勅文)에는 「상서선기령(尙書璇璣鈴)」, 「춘추보건도(春秋保乾圖)」 등 위서(緯書)의 글들이 인용되었고, 이들 인용문에 따라 개력의 필요성이 설명되었다. 안제(安帝) 연광(延光) 2년(123)의 논력(論曆) 기록에서 "사분력은 본시

---

86) 『古今律歷考』 권8. "上古天正甲子朔夜半冬至, 日月如合璧, 五星如連珠, 皆會於子爲曆元, 乃甲子年, 甲子月, 甲子日, 甲子時正初刻無餘分也."

87) 寥冀亨, 『子平四言集腋』(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0), 9쪽. "上古曆元, 起四甲子, 年月日時, 四柱本此."

88) 兪曉群, 앞의 책, 82쪽.

도참(圖讖)에서 비롯되었다"[89]라고 기술한 것도 당시의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90]

위와 같은 사정으로 채택된 사분력은 당시의 기삭(氣朔)에 적합하도록 역원(曆元)을 변경하였다. 사분력에서는 1장(章) 19년의 3배 일수는 20819.25일로서 '20819.25일=1년 일수 × 19×3=삭망월 일수×235×3'인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57년(19×3)이 경과하면 절기(節氣)와 삭(朔)이 다시 동일한 월일로 되돌아온다. 다시 이 일수(日數)에 0.75일을 더한 20,820일은 6갑자의 배수가 되기도 한다(20820=60×347).

그러므로 태초력의 역원인 태초 원년(B.C. 104)에서 57년을 앞당겨 전한(前漢) 문제(文帝) 후원(後元) 3년(B.C. 161) 경진(庚辰)년 11월 갑자야반삭단동지(甲子夜半朔旦冬至)로 사분력의 역원을 정하였다. 이렇게 해서 사분력은 태초력에 비해 0.75일만큼 빠르게 되었고 역과 천상(天象)이 일치하도록 하였다.[91]

이러한 사분력의 개원과 관련하여 당시 참위가(讖緯家)들은 노(魯) 애공(哀公) 14년(B.C. 481)에 기린(麒麟)을 사로잡은 획린(獲麟)사건[92]과 연결시켜서 사분력의 기점을 기린을 포획하기 276만 년 전의 경신(庚申)년으로 삼았다. 그래서 사분력을 경신원력(庚申元曆)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상원경신(上元庚申)도 단지 참위설의 산물일 뿐 어떤 실제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93]

역원은 역법의 기점이므로 역법 제정에서 가장 먼저 결정할 문제인데, 역원의 선택에 따라 술수가(術數家) 자신이 판단하는 술수의 계산과 일월교식(日月交食), 행성 운행의 표식인 간지(干支), 기타 상징부호의 배합도 자연히 달라진다. 이 때문에 역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역원의 선정은 술수가들의 영향 안에 있었으며 술수가들의 역원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이었다.[94]

사분력의 정착 이후에도 개력 논의는 계속되었는데 안제(安帝) 연광(延

---

89) 『後漢書』 권12 「律曆志」 2. "四分曆本起圖讖."

90) 薮內淸 지음, 兪景老 역편, 『中國의 天文學』(전파과학사, 1985), 57-59쪽.

91) 위의 책, 59-60쪽; 이문규, 앞의 책, 223-224쪽.

92) 杜氏注, 孔穎達疏, 『春秋左傳注疏』 권59. "十有四年春, 西狩獲麟. […] 五月庚申朔, 日有食之[14년 봄, 서쪽 땅에서 사냥하여 기린을 잡았다. […] 5월 초하루 경신(庚申)날에 일식(日蝕)이 있었다]."

93) 兪曉群, 앞의 책, 158쪽.

94) 최진묵, 「漢代의 改曆過程과 曆譜의 성격」, 『대구사학』 제87집(2007), 118쪽.

光) 2년(123)의 개력 논의에서 단송(亶誦)과 시연(施延)이 태초력과 사분력은 모두 부정확하여 사용할 수 없고, 오직 갑인원력(甲寅元曆)만이 하늘의 운행과 잘 들어맞으며, 또 도참에도 합치되기 때문에 갑인기원(甲寅紀元)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술수적 맥락에서이다.[95]

갑인원력이란 후한(後漢) 이래 도참이 유행하면서 『고령요(考靈曜)』·『명력서(命曆序)』 등 위서(緯書)에 따라 사분력의 경신원(庚申元)보다 114년 후인 갑인(甲寅)년을 상원(上元)으로 삼아야 한다는[96] 내용으로 모두 참위와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후한 당시 역법은 실제의 천체 운행을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역법 자체의 문제와 함께 역법이 도참에도 잘 부합하는지 여부도 역법의 취용(取用)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역원은 역법의 기점이 되므로 술수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였다.

Ⅴ. 맺음말

한중일의 동아시아에서 육십갑자 내지 간지가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 경우가 바로 간지로써 무형의 시간인 날짜를 매기는 간지력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역법만의 주요한 특징인데 그중에서도 연도를 매기는 간지기년이 가장 근간이 되며 오늘날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고 간지기년의 세수 및 역원에 대한 논의도 매우 미흡하였다.

간지기년은 처음부터 체계 정연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진한시대까지는 각종 다양한 기년법이 존재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즉위연차기년법, 세성기년법, 태세기년법 등이다. 그러나 전한 말 유흠에 의해 세성의 실제 공전주기가 약 11.86년으로 밝혀지면서 세성이 매년 천구의 적도상을 1차씩 규칙적으로 운행하여 12년에 하늘을 한 바퀴 돈다는 세성기년법과 태세기년법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유흠의 초진에 의한 기년법은 실제 역년의 추산과 기사에

---

95) 이문규, 앞의 책, 249-250쪽.

96) 『後漢書』 권12 「律曆志」 2. "中興以來, 圖讖漏泄, 而考靈曜命曆序, 皆有甲寅元. 其所起在四分庚申元後百一十四歲, 朔差却二日."

기록된 연도 간에 1년의 차이가 자주 발생하였으므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많이 불편하였다. 이에 따라 세성의 운행과는 상관없이 목성과 토성의 60년 대회합주기 등을 근거로 60간지의 순서대로 햇수를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간지기년법이다. 그러나 간지기년이 일반화된 것은 태초력이 폐지되고 후한에 이르러 85년 사분력이 개정 시행되면서부터이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한 무제 원봉 7년(B.C. 104)에 이르러 태초력을 개력하면서 동지를 11월에 고정시킨 후 입춘을 한 해의 시작으로 다시 개혁하였고, 이후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정에 따라 건인세수를 시행해오고 있다. 역원과 관련해서는 천구의 북쪽인 자방(子方)에서 일월은 구슬이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이 되고, 오성은 꿰어 이어진 구슬과 같이 되면서 일월오성의 칠요가 일직선으로 정렬했던, 시간적으로 4갑자인 때가 바로 간지기년의 역원이 된다는 상징적 설명이 있다.

그러나 실제 역보에는 몇 종의 갑인년 역원이 등장한다. 건인세수와 갑인원의 배경에는 목(木)에서 시작하는 오행상생론의 정립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태초력의 역원을 간지로 표현하며 갑인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된다. 태초 원년은 B.C. 104년(정축년)이고 태초 0년은 B.C. 105년(병자년)인데 이것이 태초 개원을 통해 갑인년으로 개칭되었고, 85년 사분력 개원을 통해 57년이 앞당겨져 B.C. 161년 경진년으로 역원이 다시 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전통문화와 민간신앙·술수학 등을 보다 온전하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지기년의 형성과정과 이와 관련된 세수·역원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이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 이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古今律曆考』, 『舊唐書』, 『國語』, 『論語集註』, 『史記』, 『事物紀原』, 『尙書』, 『書經大全』, 『宋書』, 『歷代建元考』, 『五洲衍文長箋散稿』, 『五行大義』, 『爾雅』, 『周易』, 『晉書』, 『春秋左傳注疎』, 『漢書』, 『淮南子』, 『後漢書』.

김만태, 「민속신앙을 읽는 부호, 십간·십이지에 대한 근원적 고찰」. 『민족문화연구』 제54호, 2011, 259-302쪽.

_____, 『한국 사주명리 연구』. 민속원, 2011.

_____, 「地支의 상호 변화작용 관계로서 地支合 연구」. 『철학논집』 제31집, 2012, 205-241쪽.

김만태·신동현, 「명리학에서 시간(時間)에 관한 논점 고찰: 자시(子時)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제59집, 2014, 429-468쪽.

김원중, 『중국의 문화사』. 을유문화사, 2003.

薮內淸 지음, 兪景老 역편, 『中國의 天文學』. 전파과학사, 1985.

신동준, 『중국문명의 기원』. 인간사랑, 2005.

심규철, 『명리학의 연원과 이론체계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앤서니 애브니 지음, 최광열 옮김, 『시간의 문화사』. 북로드, 2007.

유장림, 「五行學說의 起源과 形成」. 『유학연구』 제3집, 1995, 287-302쪽.

이문규,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00.

이은성, 『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사, 1985.

이종호, 『유교 경전의 이해』. 중화당, 1994.

최진묵, 「漢代의 改曆過程과 曆譜의 성격」. 『대구사학』 제87집, 2007, 113-139쪽.

키티 퍼거슨 지음, 이충 옮김, 『티코와 케플러』. 오상, 2004.

萬民英, 『三命通會』.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徐升, 『淵海子平評註』.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蕭吉, 『五行大義』. 대유학당, 1998.

新城新藏 著, 沈璿 譯, 『中國天文學史硏究』. 臺北: 翔大圖書有限公司, 1993.

王力, 『中國古代文化常識』. 南京: 江蘇敎育出版社, 2005.

寥冀亨, 『子平四言集腋』.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00.

袁樹珊, 『命理探原』.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1996.

兪曉群, 『數術探秘: 數在中國古代的神秘意義』. 北京: 三聯書店, 1995.

陳久金·楊怡, 『中國古代天文與曆法』.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0.

陳遵嬀, 『中國天文學史(제2책: 星象編)』. 臺北: 明文書局, 1985.

_____, 『中國天文學史(제5책: 曆法·曆書)』. 臺北: 明文書局, 1998.

국 문 요 약

동아시아 역법만의 특징인 간지력의 근간이 되는 간지기년은 제정 당시 처음부터 체계가 정연한 것이 아니었으며 진한(秦漢)시대까지 다양한 기년법이 존재하였다. 전한 말 유흠(劉歆)에 의해 세성(歲星)의 실제 공전주기가 11.86년으로 밝혀지면서 초진(超辰)에 의한 기년법이 실시되었는데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불편하였다. 이에 따라 세성의 운행과는 상관없이 목성과 토성의 60년 대회합(大會合, Great conjunction) 주기 등을 근거로 60간지의 순서대로 햇수를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간지기년이다. 간지기년이 일반화된 것은 후한 때 85년 사분력(四分曆)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

한 해의 기점인 세수(歲首)와 관련해서는 한 무제 B.C. 104년에 이르러 태초력(太初曆)으로 개정하면서 동지(冬至)를 11월로 고정시킨 후, 동지와 춘분의 정확한 중간 지점인 입춘(立春)을 한 해의 시작으로 개혁하였다. 그 후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정(夏正)에 따라 건인세수(建寅歲首)를 시행해오고 있다. 건인세수의 시행에는 목(봄)에서부터 시작되는 오행상생설의 정립이 큰 영향을 주었다.

천구(天球)의 북방인 자방(子方)에서 일월오성의 칠요(七曜)가 일직선으로 정렬했던, 시간적으로 4갑자(四甲子)인 때가 바로 간지기년의 역원(曆元)이 된다는 상징적 설명이 있다. 그러나 실제 역보(曆譜)에서는 몇 종의 갑인(甲寅)년 역원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태초력의 역원을 간지로 표현하면 갑인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가 된다. 태초 원년은 B.C. 104년(정축년)이고 태초 0년은 B.C. 105년(병자년)인데 이를 태초개원(改元)을 통해 갑인년으로 개칭하였고, 85년 사분력에서 B.C. 161년 경진년으로 다시 개원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투고일 2015. 6. 3.
심사일 2015. 7. 16.
게재 확정일 2015. 9. 3.
주제어(keyword) 역법(曆法, calendar), 간지력(干支曆, sexagenary cycle calendar), 간지기년(干支紀年, sexagenary cycle-based year calendar system), 세수(歲首, starting point of a year), 역원(曆元, origin of calendar), 대회합(大會合, Great Conjunctions of Jupiter and Saturn), 60년 주기(60-year-period)

Abstracts

A Study on the Origin of Calendar, the Starting Point of a Year and the Formation Process of Sexagenary Cycle-based Year Calendar System

Kim, Man-tae

The system of today's sexagenary cycle-based year calendar was not in good order from the beginning, and there had been various calendar systems until Chin and Han(秦漢). At the end of Former Han, Liu Xin(劉歆) found that the actual cycle of revolution of Jupiter was 11.86 years, which led to the implementation of a chao chen(超辰)-based calendar system. There was, however, inconvenience with its actual application. Thus they started to mark the number of years according to the order of 60-sexagenary cycle based on the 60-year-period of Great Conjunctions of Jupiter and Saturn regardless of the run of Jupiter. That was the sexagenary cycle-based calendar system. It was on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Sifen Calendar(四分曆, the quarter remainder calendar) in A.D. 85 during Latter Han that the system became generalized.

As for the first month of the year that was the starting point of a year, there was a revision to Taichu Calendar(太初曆, the beginning calendar) in B.C. 104 during the reign of Emperor Wu(武帝) of Han, which led to the fixation of winter solstice in November and the reform that made the onset of spring, which was the exact middle point between winter solstice and vernal equinox, the beginning of a year. Since then, the starting point of a year by the standard of In(寅) month(建寅歲首) has been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first month of the year of Xia dynasty except for certain periods.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a year by the standard of In(寅) month was hugely influenced by the establishment of Wu-Xing-Xiang-Sheng-Shuo that began with wood[spring].

There is a symbolic explanation that the origin of calendar of sexagenary cycle-based calendar was when the seven luminaries of sun, moon and the five visible planets were arranged in a straight line in the northern celestial sphere or during 4 Gapja(甲子). The actual calendar, however, has a couple of different origins of calendar of Gapin(甲寅). A good example is that the origin of calendar of Taichu Calendar(太初曆) is Gapin(甲寅) year, Gapja(甲子) month, Gapja(甲子) day, Gapja(甲子) hour according to the sexagenary cycle-based expressions. The first year of Taichu was B.C. 104(丁丑, Jeongchuk) but the zero year of Taichu that was the standard of Taichu Calendar(太初曆) was B.C. 105, a year of Byeongja(丙子). It was changed to a year of Gapin(甲寅) through Taichu revision of the origin of calendar(太初改元). However, the

origin of calendar was revised as B.C. 161(庚辰, Gyeongjin) through Sifen Calendar(四分曆) in A.D. 85, and the changed title has been in use since then.